

# 국내외 인공지능 석학들, 광주서 학술대회 연다

광주시, '아이콘 광주 2024' 개최 30일~내달 1일 광주과학기술원 초거대 인공지능·AI 윤리 등 논의 첨단기술·혁신비즈니스 사례 공유

국내외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미래를 내다보는 세계적 AI 학술회의가 광주에서 열린다.

6일 광주시는 오는 30일부터 11월1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희관에서 '제4회 아이콘(AICON) 광주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이콘(AICON) 광주 2024'는 광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주관하며, 세계적 인공지능 석학들과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기업인, 기관, 대학,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국

내 대표적 인공지능 학술회의이다.

프로그램은 기초강연, 특별강연, 6개의 주요 AI 세션, 인공지능 토론회, 인공지능 북콘서트 등으로 구성, 인공지능의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 응용사례를 다양하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사 첫날인 30일에는 티모시 파판드레우 미국 이머징 트랜스포트 어드바이저의 최고경영자(CEO)가 'AI의 미래'를, 정지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가 'AI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연다. 이어 크리스토퍼 데이즈 독일 디에이치엘(DHL) 부사장이 'AI 혁신 사례'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둘째 날인 31일에는 '초거대 AI'를 주제로 한국·중국·일본의 대형언어모델(LLM) 시장 현황과 미래를 논의하는 세션이 열린다. 야슈히로 카타기리 일본 인공지능연구센터(AIRC) 센터장, 리칭쉬

안 중국 베이징 AI연구소(BAAI)의 수석연구원, 이문태 LG AI연구원 랩장이 각국의 대형언어모델(LLM) 기술 발전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AI 클러스터' 세션에서는 캐나다·중국·일본의 인공지능협의체(클러스터)와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사례를 공유하며, 세계 인공지능산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 'AI 반도체 & 온디바이스' 세션에서는 AMD, NVIDIA 등 세계 리더들이 인공지능반도체 기술과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의 발전 전망 등을 다룬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이란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에 연결돼 데이터와 연산을 지원받았던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AI에서 벗어나 기기 자체에 탑재돼 직접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11월1일에는 'AI 비즈니스', 'AI 미래 포럼', 'AI 윤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과 최재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 교수가 산업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며, 석 세그훈 토드 태국 AI 거버넌스 클리닉(AIGC) 선임 어드바이저가 태국 인공지능 발전 현황과 정부-기업 간 협업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AI 윤리' 세션에서는 데이터 윤리 문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책임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이콘(AICON) 광주 2024'에서는 시민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리는 'AI 토론회'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비경쟁 방식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제를 토론하는 기회다.

'인공지능 북콘서트'에서는 인공지능 석학인 장병택 서울대학교 교수와 오순영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하정우·배순민 작가가 참여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적 자극과 함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 되는 이야기를 나눈다.

행사 기간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에 인공지능집적단지 홍보관이 마련돼 인공지능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협력 네트워크' 행사에서는 국내외 연사들과 기술·비즈니스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아이콘(AICON) 광주 2024' 누리집(<https://aicon2024.com>)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행사는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체험하며 세계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전남도, '나주 척서정' 등 7건 문화유산 지정

불교미술 등 중요성 인정

전남도가 조선시대 지어진 나주 척서정 등 7건을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지정 유산은 불교미술, 고문서, 지역 생활유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척서정은 고려 후기 무신 정지(1347~1391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후손 정해일이 1915년 건립한 정자다. 이후 영정(影幀)을 모셔둔 사당인 영당(靈堂)으로 기능이 변용됐다. 종중활동의 공간이자 선현 제향과 연관되는 공간이다. 전통 목조 구조가 견실하고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여수 한산사 지장시왕도는 18세기 전반 불화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조성 연대와 봉안처, 참여 제작자들의 기록이 남아 불교사와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다.

순천 금룡사 지장보살본원경은 임진왜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간행처, 간행과

정을 통해 당대 불교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서지학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닌다.

해남 남천교와 어성교 중수비와 청류정 표석은 지역 향촌사회와 당시 지명사를 파악하는데 귀중한 유산으로 인정됐다. 생활유적인 해남 방죽샘과 중수비는 우물 조성 시기와 참여 인물들이 기록돼 있어 지역사와 우물 연구에 중요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1800년대 초반 사랑채와 행랑채를 붙여 세운 장흥 열호재는 건축적인 특징과 함께 복합 문화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정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흥 수의봉과 위원량 망곡 암각사문은 한일 병탈에 따른 국망(國亡) 통탄을 칠연절구에 담아 수의봉에 새긴 희귀자료다. 역사적·학술적 의의가 크다.

김지호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이번 지정으로 다양한 유산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후손에게 길이 전승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문화자원을 지속해서 발굴·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립도서관, '시월애(愛) 북크닉' 운영

작가와 만남·전시·체험 다채

광주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연·전시·체험행사 등 '시월애(愛) 북크닉' 행사를 운영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등도서관은 오는 15일 유화작품 전시, 자료실 테마도서 전시를 시작으로, 19일 류현주작가의 '반드시 성공하는 가족독서모임', 27일 무등작가의 '괴물들이 사는 궁궐', 박구용 전남대 교수의 '지금 여기에서 사람답게 살기' 강연을 진행한다.

사직도서관은 지난 2일 한국과 작품 전시, 자료실 테마도서 전시를 시작으로, 12일 정재경 작가의 '단단한 어른을 위한 삶의 기술', 27일 이명애 작가의 '환경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 강연을 준비했다.

노병하 기자

산수도서관에서는 지난 2일부터 에너지 기후 도서 전시, 그림책 원화 전시가 열리며 15일과 22일에는 마음을 그리는 팝아트 체험, 29일에는 페이퍼 플라워 체험을 할 수 있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소풍 오는 마음으로 도서관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시월애(愛) 북크닉 행사'를 통해 시민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과 체험은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해야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citylib.gwangju.kr>)과 무등도서관 문헌정보과(062-613-7727), 사직도서관(062-613-7772), 산수도서관(062-613-7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펫크닉 '2024 광주 펫크닉(pet+picnic)'과 '광주펫쇼'가 지난 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즐거움과 배움의 펫 페스티벌'을 주제로 열린 가운데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양배 기자

## 전남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 570억 지원

ha당 평균 65만원 '전국 최대'

전남도가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급 신청을 25일까지 접수한다. 쌀값 하락과 잦은 재해 등으로 어려운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0억원(도비 228억원·시군비 342억원) 수준이다. ha당 지급액도 평균 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남을 제외한 시·군별 지급액은 경남

300억원, 경북 162억원, 전북 120억원, 충북 26억원이다. ha당 지급액은 경북 20만원, 경남 15만원, 전북 13만원, 충북 9만원 등이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1000㎡(0.1ha)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가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2ha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11월 중 신청자의 자격 적격 여부 검토 과정을 거쳐 12월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

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과장은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매년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며 "신청 대상 농가는 모두 빠짐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2001년 전국 최초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23년간 1조830억원을 지원했다.

오지현 기자

## 전남소방본부, 올해 온열질환 구급활동 321건

역대급 폭염에 10년새 최고

역대급 폭염으로 온열질환 구급활동도 최근 10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올여름 지역 온열질환 관련 119구급대 출동건수가 321건으로,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청 자료 분석 결과 올해 전남 폭염 일수는 33.1일로 전년(9.3일)보다 255%

증가하고, 열대야 일수도 전년(14.7일)보다 157% 증가한 37.8일을 기록했다.

전남소방은 5월부터 9월을 여름철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온열질환자 대응 폭염구급대 운영, 구급대원의 폭염 응급처치 능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 출동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84건)보다 74.5%(137건)나 늘었다. 최근 10년 중 온열질환 출동 건수가 가

장 많았던 2018년(220건)보다도 31.4%나 증가했다.

연령별 온열환자는 81세 이상이 22.4%(72명)로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 19.6%(63명), 61세 이상 15.8%(51명)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낮 12시~오후 3시 35.5%(114명)로 가장 취약했다. 이어 오후 3~6시 29.9%(96명), 오전 9시~낮 12시 22.7%(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강·밭 28%(90건), 도로 22.7%(73건), 집 18.3%(59건), 건설 현장 9%(29건) 순으로 분석됐다.

오지현 기자